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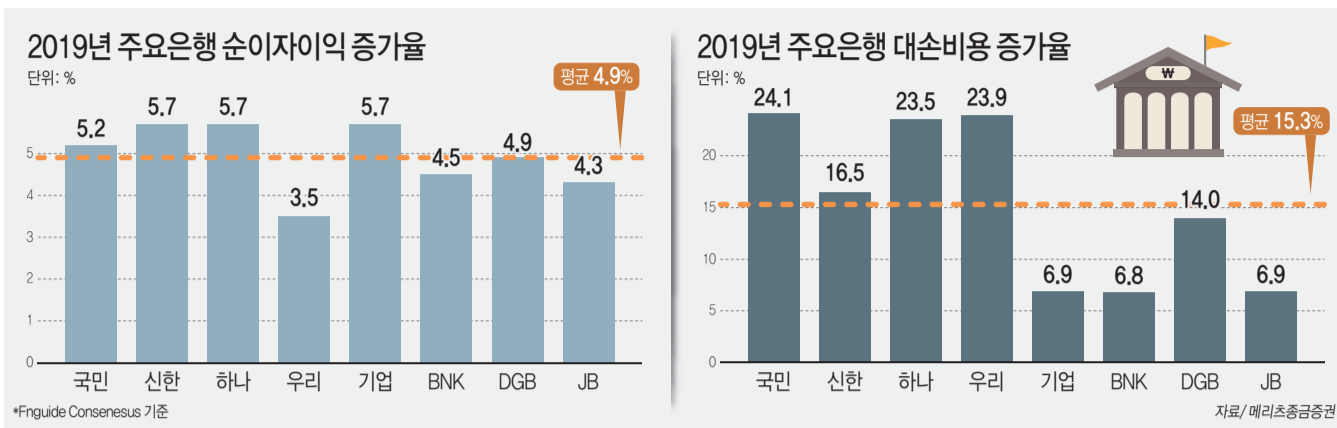
# 시중銀, 내년 실적 ‘경고등’... 비용과의 전쟁

저금리 예금 줄고 정기에금 증가  
대출금리 보다 조달금리 인상 커  
주요 4개은행 예상 추가 대손비용  
연간 2500억원 불과... 금액 ‘미미’

# “2019년은 비용(Funding cost)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이 점점 줄고 있어 흔히 말하는 이자장사 해서 먹고살기 힘들어 질 것이다.”(A은행 B부행장)

# “경기가 더 나빠지면 대손비용률 (Credit Cost)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비용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B은행 C임원)

시중은행들의 내년 실적은 비용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까지 낮춘 상태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하면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손비용률 (Credit Cost)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 비중은 총예금에서 14.7%였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말 14.9%까지 비중이 커졌다가 올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마진이 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조달금리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분기 KB국민은행의 저원가성예금인 요구불성예금은 전분기보다 2% 하락했다. 반면 저축성 예금은 전분기보다 5.1% 증가했고 지난해 말 대비 11.2% 크게 늘었다. KEB하나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핵심 저금리성예금은 전분기보다 3.8% 떨어졌고 지난해 말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정기에금은 전분기보다 5.8%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1.3% 크게 증가했다. 메리츠증권권 은행권 연구원은 “은행권 조달 비용은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에 따른 후행적 상승, 예대율 산식 변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자금 조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간 순이자마진(NIM) 개선을 주도했던 저원가성예금 비중 하락(정기에금 비중 상승)도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더 나빠져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웃돈을 주고 돈을 빌릴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면서 “앞선데 댄트 격으로 가계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산금리가 은행간 경쟁, 정책 공조화(생산적·포용적 금융) 등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은행실적에 큰 변수 중 하나인 대손비용률(Credit Cost)의 절대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총당금 환입은 마무리 국면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총당금은 3분기에 환입됐고, 국민유선방송

을 제외하면 최근 3~4년내 발생했던 대기업에 대한 대손비용도 대부분 처리됐다. 가계부문은 10bp(1bp=0.01%포인트) 내외의 안정적인 대손율이 자리잡았다. 대규모 총당금 환입건이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대손비용은 소폭이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주요 4개 은행의 예상 대손비용 추가분은 연간 2500억원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어 추가적 대손비용 감축이 예상되는 기업은행과 달리, KB와 하나의 경우 대손비용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익증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DB금융투자는 KB·신한·하나·기업은행의 내년 판관비도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다 고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강해서 대규모 희망퇴직 등 비용절감 시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비용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편의점·미용업계 포화... ‘구조조정’ 시작

>> 1면 ‘단순노무직 9.3만 감소...’서 계속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미리 줄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쇠퇴는 고용을 위축시키고 가계 소득과 소비를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됐다.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소비 확산 등도 숙박·음식점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미용업계 등 일부 업종은 포화 단계에 진입한 탓에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다. 올해 들어 얼어붙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도 단순 노무 일자리 부진의 중요한 원

인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단순노무직의 상당 부분은 공사장 인부 등이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만~17만명 수준이었던 건설업 일자리 증가 폭은 올해 들어 1만~5만명 내외로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자 내년 1월 인상을 앞두고 한계 업종들이 미리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숙박·음식점업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최근 단순노무직 감소세가 숙박·음식점업에서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옮겨간 것에는 업종 간 단순노무직의 숙련도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최신종 기자 grandtrust@

## 기술 발달로 TV·스크린 경계 사라져

>> 1면 ‘소형은 삼성, 대형은 LG’서 계속

이미 OLED TV 인기는 점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OLED TV는 약 106만대 판매되면서 전년(50만대)의 2배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말까지 예상치인 250만대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LED TV는 검은색 표현력이 높고, 선명도가 높아서 소비자를 선호도가 높다. 잔상이 남는 ‘번인’ 현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번인을 막기 위한 여러 기술이 적용되면서 문제를 상당수 해결한 상태다. OLED TV는 LG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전세계 대형 OLED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다. LG가 꿈꾸는 미래 대형 OLED 세상은 다양하다. 이미 LG 사이니지(상업용 대형 스크린)는 OLED 특징을 이용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부러져 사용 중이다. LG 디스플레이가 마는 OLED를 선보이면서, TV와 스크린 경계도 모호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 LG전자가 가구를 융합한 가전 브랜드 ‘오브제’를 최근 론칭했던 만큼, OLED는 더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어떤 새로운 OLED TV를 내놓을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OLED가 장점이 뚜렷한 디스플레이인 만큼, 다양한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공인회계사 “증원 보다 ‘근로환경 개선’ 우선”

회계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후폭풍

금융위, 연간 900명 선발 ‘부족’  
업계, 신입회계사 70% 감사부 배정  
업무강도 높고 보수는 턱없이 부족

회계업계에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회계사 선발 인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고, 회계업계는 성급한 증원은 ‘악수’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계감사 인력 부족은 적은 인원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업무환경에 있는 만큼 감사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금융위는 ‘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회계사 선발인원을 확정한다. 현재 기준은 ‘850명 이상’으로 매년 900명 안팎으로 회계사를 선발해 왔지만 이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실제 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서는 내년 회계사 합격 인원이 2000여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4대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과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합격자수를 5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렸지만 실제 미지정 회계사가 계속 나오면서 합격자수를 다시 90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증원은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 면접보러 다니는 회계사 회계업계는 현재 금융위가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취업자 수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감사 인원 부족보다는 고강도 업무가 문제라는 것.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국내 공인회계사는 2만590명으로 2008년(1만194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실제 회계법인과 개인 사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등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는 1만 3242명으로 휴업자가 7347명(36%)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현재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 역시 민간기업, 금융공기업 등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회계사가 다수라고 전한다. 한 회계사는 “편한 업무환경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금융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며칠 전에 금융공기업 최종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동기를 만날 정도로 많은 회계사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무환경 개선이 먼저 일반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은 신입 회계사 채용 시 전체 30% 정도만을 세무자문본부와 재무자문본부로 채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감사업무로 배정한다. 올해 삼정회계법인 기준 360여명 중 약 250명의 신입 회계사가 감사본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에게 감사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분야다. 의과대학으로 치면 응급병동으로 빠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도 클 뿐더러 업무 강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무에 비해 감사보수는 턱없이 작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실제 한공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

준 매출액 6조원 이상 상장 기업의 감사 보수 평균은 미국이 162억9800만원인데 비해 한국은 7억3800만원에 불과해 감사 보수 격차가 2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입 회계사를 뽑는 것은 감사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주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회계사를 현업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회계사는 “감사팀의 인원구성원은 50% 이상이 1~3년차로 저년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면서 “회계법인은 2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지원가능한 트랜스퍼 제도가 있는데 감사로 배치된 회계사들이 2년만 채우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력있는 회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신입을 더 많이 뽑아서 채우면 회계 감사가 기업에 휘둘리고, 감사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경 한공회 회장 역시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사 한 명이 최소 40년 이상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40~50년을 보고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회계사 증원보다는 휴업 회계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